

# 탄력 받은 김무성號 당직 대대적 물갈이 나선다

## 새누리당 조직개편 임박...사무총장 등 빅3 관심

### ‘재보선 파란’ 이정현 지명직 최고위원직 맡을 듯

7·30 재보궐선거에서 완승을 한 새누리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당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14 전당대회로 선출된 김무성 대표는 선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인사사를 미뤄 보류 중인 사실상 ‘임시 체제’로 당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 31일 “새로운 체

제가 출범했는데도 선거 때문에 인사를 연기했는데 이제는 뜰일이 이유가 없다”면서 “다음주에는 개편안을 선보일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우선, 김 대표는 취임한 지 보름 만에 열린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치적 입지가 탄탄해졌기 때문에 자신의 색깔을 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과거 청와대 눈치를 살폈던 ‘관리형 당대표’가 아닌 만큼 인사의 폭이나 내용이 기존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은 공식 기구표상 나타난 주요 직을 기준으로도 4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자리는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 핵심 ‘빅3’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당의 자금과 조직 등 여당 곳간의 열쇠를 갖고 공천작업까지 깊게 관여하는 사무총장이 핵심이다. 마침 윤상현 사무총장이 이

날 “소임을 다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3선 이상의 중량급 있는 인물 중에서 사무총장을 발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최고위에 대구·경북(TK) 출신이 없다는 점도 고려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4선의 이병석(경북 포항 북구), 3선의 김태환(경북 구미)을 유승민(대구 동읍) 장운석(경북 영주) 의원 등이 거론된다. 또 TK는 아니지만 3선 그룹에서 이근현(경남 통영·고성) 한선교(경기 용인병) 의원 이름도 오르내린다.

각종 선거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판단의 근거인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여의

도연구원장도 관심사다.

이에 따라 역시 당내 중진이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지난해 10월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원장을 외부 인사가 맡을 수 있도록 개방해 원외 출신을 배려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4선인 정병국 의원과,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3선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이 거론된다.

이어 당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호남, 청년, 여성을 대

표하는 인물을 물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순천·곡성에서 당선되며 파란을 일으킨 이정현 의원이 임명직 최고위원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대변인, 제1·2사무부총장, 비서실장 등도 당 대표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할 주요 보직으로 통한다. 재선 그룹에서 김성태 김태원 김학용 조해진 의원과 초선에서 서용호 의원, 원외에서는 김무성 캠프에 몸담았던 안형환 전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국 정치사의 큰 획”

### 김무성 대표 이정현 당선자 극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1일 국회 최고 위원회에서 이정현 후보가 26년 만에 처음 광주·전남지역에서 당선된 데 대해 “한국 정치사의 큰 획을 긋는 일”이라며 “호남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 데 대해 정말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alue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정현 후보의 승리를 계기로 호남인들에게 더욱 열린 마음과 자세로 다가가겠다”면서 “앞으로 지역 갈등을 조정하거나 편 가르기 하는 정치를 단호히 배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상 밖의 압승을 거둔 7·30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김 대표는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대승이 자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이 잘못했다고 표를 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 지금부터 잘하라고 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 당선자, 감사 인사도 자전거 타고  
선 감사 인사를 나누고 있다.

7·30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자가 지난 31일 자신의 고향인 곡성을 찾아 선거유세 때 탔던 자전거를 다시 타고 곡성읍내를 돌며 당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김부겸 전 의원, 이정현 당선에 “고생 해본 사람만 알죠”

### 대구 지역구도 타파 매진 밝혀

“이거는 고생해본 사람만 알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축하해야죠.”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과 함께 지역주의 구도를 깨는데 앞장선 정치인으로 평가받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당선에 대해 “여야를 떠나 축하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의원의 당선이 가진 정치적 의미도 크지만 정치인들이 쳐놓은 울

타파 같은 지역주의를 국민이 스스로 해체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야당 텃밭에서 이 의원이 일군 승리를 높이 평가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에서 각각 상대 진영의 텃밭인 광주 서울(乙)과 대구 수성갑에 ‘지역구도 타파’를 외치며 출마해 나란히 고배를 들었다.

특히 세 차례나 당선됐던 경기 군포를 포기하고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곳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은 4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해 지역구

도 타파에 의미있는 발자취를 남겼다는 호평을 들었다.

이 의원의 당선 소식에 “먼저 (당신이 돼) 가버렸다”고 말한 김 전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대구에 도전해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웃으면서 “그런 꿈도 안 꾸겠다”라고 반문했다.

새정치연합의 참패 원인을 묻자 김 전 의원은 “공천도 문제였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며 “국민이 여당에 실망했을 때의 대안으로

서 범야권이 어떻게 거듭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길·안철수 대표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비대위 체제를 꾸리게 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나 조기 전대 출마 후보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지도부가 되고 하는 권력싸움에 국민은 지켰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어 “우리가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계기만 생각하겠다”며 “대구에서 계속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연합스

## 3년 간 내리 진 새정치

### “패배 일상화됐다” 푸념

#### 2016년 총선 절치부심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에서 완패하면서 3년간 계속 패배만 하는 정당이 됐다.

도대체 야당이 언제 승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패배가 일상화됐다. 10월 재보선에서도 2곳을 모두 내렸다.

4월 재보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당선됐지만 당시 무소속이었다.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 하에서 치러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9곳에서 광역단체장을 당선시키며 8곳을 가져간 새누리당과 비겼다.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당시 정치 상황 등 내막을 들여다보면 패배였다.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또다시 참패를 당하면서 기나긴 패배의 수렁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도 암울한 상황이다.

최근의 두 번 패배 역시 이 역시 양 대표가 계파 이기주의적 공천을 통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얻어 152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에 졌다. 선거 초반 전체 의석의 3분의 2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좋은 선거 환경이었으나 당권을 장악한 친노(친노무현)계의 계파 중심 공천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어 친노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그

해 12월 대통령선거에 나섰으나 역시 친노 위주의 선거운동과 전략부재를 나타내며 완패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는 재보선에서 단 한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도 내지 못하는 골욕도 겪었다. 지난해 4월 3곳에서 열린 재보선에서 한 곳도 건지지 못했다.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 하에서 치러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는 9곳에서 광역단체장을 당선시키며 8곳을 가져간 새누리당과 비겼다.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당시 정치 상황 등 내막을 들여다보면 패배였다.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또다시 참패를 당하면서 기나긴 패배의 수렁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도 암울한 상황이다.

최근의 두 번 패배 역시 이 역시 양 대표가 계파 이기주의적 공천을 통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얻어 152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에 졌다. 선거 초반 전체 의석의 3분의 2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좋은 선거 환경이었으나 당권을 장악한 친노(친노무현)계의 계파 중심 공천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어 친노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그

최근의 두 번 패배 역시 이 역시 양 대표가 계파 이기주의적 공천을 통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얻어 152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에 졌다. 선거 초반 전체 의석의 3분의 2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좋은 선거 환경이었으나 당권을 장악한 친노(친노무현)계의 계파 중심 공천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4면 증면 발행...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금리는 낮게 ↓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

정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자 **서상덕** (전 교육연구원) 석사

- 1.필사본
- 2.정가 : **32,000원**(택배비 포함)
- 3.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 4.불법 복제를 금함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주덕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속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싱글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판넬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역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